

아기 호랑이 김도영·윤도현 “중요한 건 체력과 기본기”



지난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호랑이 게임’에 참석한 2022년 신인 윤도현(왼쪽)과 김도영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도영 “어깨 부상에 1군 캠프 불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윤도현 “아쉽지만 합평에서 몸 만들고 수비 능력 보강에 집중”

김도영과 윤도현 ‘아기 호랑이’들의 1군 캠프가 어렵게 무산됐다. 퓨처스 캠프에서 차분하게 프로 데뷔를 준비하게 된 두 선수는 ‘기본기’에 집중할 생각이다.

지난 19일 챔피언스필드가 ‘생존 싸움’ 현상이 됐다. 이날 그라운드에서는 팬 미팅 행사인 ‘호랑이 가족 한마당’의 새 프로그램 ‘호랑이 게임’의 사전 녹화가 진행됐다.

1군 캠프 선수들은 물론 2군에서 마무리 훈련을 하는 이들도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등을 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웃음이 넘친 이 자리에 2022년 신인 김도영과 윤도현도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두 선수는 이날 오전 1군 캠프단에 합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도영의 어깨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1군 합류가 불발됐다.

김도영은 지난 10월 멕시코에서 끝난 U23야구 월드컵에 참가했다가 주루 도중 왼쪽 어깨 부상을 입었다. 어깨 재활과 함께 수비 훈련에 집중하느라 본격적인 타격 훈련은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코칭스태프는 아직 어린 선수들이 낯선 환경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합평 캠프에서 남은 훈련을 소화

하도록 결정했다.

대신 김종국 수석코치가 21일 합평 챌린저스 필드를 찾아 신인 선수들의 훈련을 직접 지켜봤다.

훈련 대신 유쾌한 게임으로 1군 선배들과 처음 호흡을 맞춘 김도영은 “빨리 탈락해서 아쉽다. 형들과 오래 있어서 적응하고 그랬으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인데 아쉽다”고 이야기했다.

윤도현도 “아직 어색해서 다 못 보여드려서 아쉽다”고 웃었다.

게임에서는 좋은 결과는 내지 못했지만 프로 첫 캠프는 이미 적응을 끝냈고, 빠르게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김도영은 “코치님께서 많이 잘 알려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다”며 “마무리 캠프 목적이 체력을 올리는 것이니까 체력 많이 키우고 있다. 체력 부분은 많이 길러진 것 같아서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코치님들과 수비를 잘 만들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 기본기부터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몸 상태라는 돌발변수가 생겼지만 1차 지명 선수로 선택한 김도영에 대한 코칭스태프의 기대감은 크다.

김종국 수석코치는 “훈련을 지켜봤는데 어깨도 강한 편이고 송구도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다. 운동

신경이 좋아서 기술 습득력도 빠르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윤도현도 빠르게 몸 상태를 끌어올리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스스로 평가한 성과도 바로 ‘몸’이다.

윤도현은 “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합평에 있는 동안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프로 와서 처음 인바디 잤을 때보다 근육량도 2kg가 늘었다”고 언급했다.

가장 자신 있고 그만큼 더 신경 쓸 부분은 ‘수비’다.

윤도현은 “합평 와서 놀란 게 선배님들 수비하는 것이었다. 아마추어와 다르다. 기본기, 송구, 여유로움, 스텝 전체적인 것이 다르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느껴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비 보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신인 선수는 TV에서 보던 경쟁한 선배들과 즐거운 게임을 하면서 색다른 하루를 보냈다. 아직 정식 번호가 없는 이들은 자신의 배번을 단 다른 선수들과 달리 ‘오징어 게임’ 주인공이 드라마에서 사용했던 번호 456과 128번을 달고 뛰었다.

그라운드의 새로운 주인공을 꿈꾸는 두 사람은 합평에서는 한방을 쓰는 룸메이트다. ‘간부’지만 1군 내야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경쟁자이기도 하다.

유쾌한 하루를 보낸 김도영과 윤도현이 1군 캠프 합류 불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챌린저스 필드에서 2022시즌을 위한 어필 무대를 이어가게 된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페퍼스, 비수가 된 수비



‘페기’를 강조했던 AI 페퍼스가 강팀들에 주눅 들면서 경기력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3일 현대건설, 19일 GS칼텍스를 상대한 AI페퍼스는 두 경기 모두 세트스코어 0-3으로 무력하게 패배했다. 현대건설은 10전 10승 ‘무패 행진’을 이고 있는 부동의 1위 팀이며, GS칼텍스는 승점 18점으로 2위 KGC 인삼공사를 3점 차로 쫓고 있는 3위 강팀이다.

1라운드에서 AI페퍼스는 ‘도전자의 페기’를 아낌없이 쏟아내며 의외로 선전했다. 인삼공사를 상대로 첫 세트를 가져오고, 1라운드에서 현대건설과 홈세트 접전을 벌인 유일한 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2라운드 들어 AI페퍼스는 강팀 앞에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리시브다. 평균 리시브 효율 26.03%로 6위를 기록 중인 AI페퍼스는 강팀을 상대할 때 더욱 리시브 실력이 무너진다.

현대건설전에서 AI페퍼스는 리시브 효율 20.69%만을 기록했다. 리시브 효율은 정확한 리시브(세터가 1m 내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횟수에서 실패 횟수를 빼고, 이를 전체 리시브 시도 횟수로 나눈 값이다.

GS칼텍스전에서는 처음으로 리시브 효율 ‘0%’를 기록했다. 총 리시브 시도 66번 중 정확 8번, 실패 8번으로 효율을 따질 수가 없었다.

리시브 제어가 안 되니 공격도 수비도 모두 흔들렸다. 리시브된 볼 궤적이 너무 큰 바람에 세터가 자기 위치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격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GS칼텍스가 91번 공격 시

리시브 불안에 공격도 무더져

GS 칼텍스전 수비 효율 ‘0’
25일 인삼공사전 2승 도전

도를 할 때 AI페퍼스는 78번에 그쳤다.

김형실 AI페퍼스 감독도 “하나가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다 안된다. 단 한 점이라도 끝까지 집중해야 하는데, 선수들끼리 집중이 잘 안된다”며 “관록의 차이다. 볼 리듬을 잘 찾지 못하는 것 같다”고 원인을 짚었다.

정신력도 다소 흔들렸다. AI페퍼스는 1라운드에서 강팀들을 상대로도 주눅 들지 않았고, 기세를 몰아 점수를 가져오곤 했다.

2라운드에서는 달랐다. 현대건설전에서는 각 세트 중반까지 접전을 펼치다 후반 들어 집중력을 잃고 크게 실점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각 세트를 18-25, 17-25, 18-25로 7-8점 차이에서 무기력하게 패했다. GS칼텍스전에서도 16-25, 18-25, 21-25로 비슷한 흐름이었다.

범실 숫자도 흔들린 정신력을 방증한다. AI페퍼스는 7개 구단 중 가장 많은 205회 범실을 냈으며, 이 중 절반을 넘는 108건이 서브 범실이다.

AI페퍼스는 다음 경기에서도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강팀 인삼공사와 맞대결을 해야 한다. 인삼공사전마저 무기력하게 ‘사냥’당하지 않으려면 기본기를 다지고 집중력을 살려야 한다.

한편 AI페퍼스 다음 경기는 오는 25일 오후 7시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인삼공사와 원정 경기로 펼쳐진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포항, 알 힐랄과 내일 밤 아시아 챔스 결승전

포항 스틸러스가 24일 오전 1시(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알 힐랄(사우디아라비아)을 상대로 2021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결승전을 치른다.

이날 결승전에서 이기는 팀은 상금 400만 달러(약 47억6000만원)를 받고, 2022년 초로 예정된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출전권까지 가져간다.

클럽 월드컵은 최하위를 하더라도 상금 250만 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포항과 알 힐랄의 결승전은 최소 6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77억 3000만원이 걸린 맞대결인 셈이다.

포항과 알 힐랄은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지금까지 세 번 우승, 최다 우승 기록을 나눠 가진 팀들이다. 포항은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이라는 명칭으로 열린 1996-1997시즌과 1997-1998시즌, ACL로 바뀐 2009년 등 세 번 우승했고, 알 힐랄은 1991년과 1999-2000시즌, 2019년에 이어 네

번째 우승을 노린다.

포항은 16강과 8강에서 한 골씩 넣은 이승모가 병역 관련 봉사 시간 미달로 이번 경기에 뛠 수 없고, 주전 골키퍼 강현무도 부상에 따른 수술로 결장한다.

조별리그에서 2골, 나고야와 준준결승에서 2골 등 총 4골을 터뜨린 이승모와 지난해 울산 소속으로 ACL 정상에 올랐던 신진호 등이 아시아 정상 정복의 선봉에 선다.

김기동 감독은 우승할 경우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에 이어 감독과 선수로 모두 ACL을 제패하는 두 번째 한국인이 된다. 김기동 감독은 2009년 포항이 ACL을 제패할 당시 선수로 뛰었다. 포르투갈 출신 레오나르두 자르짐 감독이 지휘하는 알 힐랄은 한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장현수와 바페팀비 고미스(프랑스), 마테우스 페레이라(브라질), 무사 마레가(말리) 등이 포진해 있다.

/연합뉴스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가 21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낭트와의 2021-2022 리그1 경기에서 정규리그 첫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시, 프랑스 리그1 6경기만에 첫 골

부상을 떨치고 돌아온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이하 PSG)가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정규리그에서 마침내 첫 골을 신고했다.

메시는 21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낭트와의 2021-2022 리그1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팀이 2-1로 앞선 후반 42분 추가 골을 터뜨렸다.

메시가 PSG 유니폼을 입고 리그1 경기에서 기록한 1호 골이다.

8월 PSG에 합류한 메시는 이 경기 전까지 리그1 정규리그 5경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3경기에 출전, UCL에서만 3골을

기록 중이었다.

무릎과 햄스트링 등이 좋지 않아 경기에 꾸준히 나서지 못했고, 이달 초 라이프치히와의 UCL 조별리그 경기, 보르도와의 리그1 13라운드에도 연이여 결장했다.

이후 A매치 기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소집돼 13일 우루과이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남미예선 원정 경기에 후반 교체 투입된 메시는 17일 브라질과의 홈 경기엔 선발로 출전했고, PSG 경기에도 복귀해 정규리그에서 처음으로 골 맛을 봤다.

이날 메시와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를 선발

공격적으로 내세운 PSG는 경기 시작 2분 만에 음바페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후반 19분 골키퍼 케일러 나바스가 역습을 막을 때 앞으로 나와 상대 선수와 강하게 부딪치며 퇴장 당해 위기를 맞았다.

네이마르를 빼고 골키퍼 세리히오 리코를 투입한 뒤 수적 열세를 떠안고 싸우던 PSG는 후반 31분 폴로 무아니에게 동점 골을 내주고 흔들렸다.

하지만 후반 36분 PSG는 상대 자책골로 리드를 되찾았다. 중원에서 메시가 투입하려던 공을 상대 수비수 데니스 아피아가 페널티아크 근처에서 끊어내려던 게 발을 맞고 꺾여 골대 안으로 향했다.

이어 후반 42분엔 메시가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원발 감아차기로 골문을 열어 쐐기를 박았다.

/연합뉴스